

## 소감문

교과목명	스타트업초청강연	담당교수명	박종용	강연일자	2018.10.30.화
강연제목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			강연자	박희용
학과 및 학년	일본학과 1학년	학번	2018049807	성명	심유빈

강사님이 강의 시작 후 처음에 영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메디치 효과에 관한 영상이었다. 메디치 효과는 서로 다른 분야를 접목해 새로운 것을 만드는 효과로 보통의 아이디어를 만드는데 자주 쓰이는 효과이고, 어원은 르네상스 시대를 연 메디치 가문에서 따왔다고 한다. 창업 아이디어란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대가로 소비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이고 우리가 창업을 하려면 이 창업 아이디어가 좋아야 할 것이다. 아무래도 창업을 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역시 돈을 벌기 위함이라 생각한다. 창업을 해도 돈이 벌리지 않는다면 그동안 들어간 돈과 시간이 아까울 것이다. 아이디어를 정했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항목들이 있다. 언제까지 창업을 할 것이며, 얼마를 벌 것인가. 이는 사람들이 별로 고려하지 않는 부분인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막상 창업이라 하면 시작은 하고 싶어 하는데 끝맺음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모르는 게 현실이다. 물론 처음 시작할 땐 모두들 자신이 죽을 때까지 끌고 가리라 생각하겠지만 쉽지만은 아닌 일이다. 트렌드와 맞지 않는 아이디어는 사람들에게 당혹감과 거부감이 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 트렌드 또한 잘 파악해야 한다. 요즘의 우리나라 트렌드는 '소확행' 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다. 작년에 한때 우리나라를 강타한 트렌드인 YOLO에서 한 단계 현실적으로 낮아진 트렌드인 것이다. 여유롭게 차 한잔을 마시는 시간을 갖거나,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낮잠을 자는 등 소소한 행복들이다. 다음으로 '워라밸'이라는 트렌드이다. 워라밸은 Work-Life-Balance의 줄임말로 일하는 시간과 일상생활을 위한 시간의 밸런스를 맞춘다는 트렌드이다. 다음 트렌드는 '나만의 케렌시아'이다. 케렌시아는 소가 투우 경기중 마지막 일전을 위해 숨을 고르는 공간이라고 한다. 현대인들도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고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들을 나만의 케렌시아라고 한다. 강연을 들어보니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트렌드가 있고, 이 트렌드에 맞추어 창업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 창업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